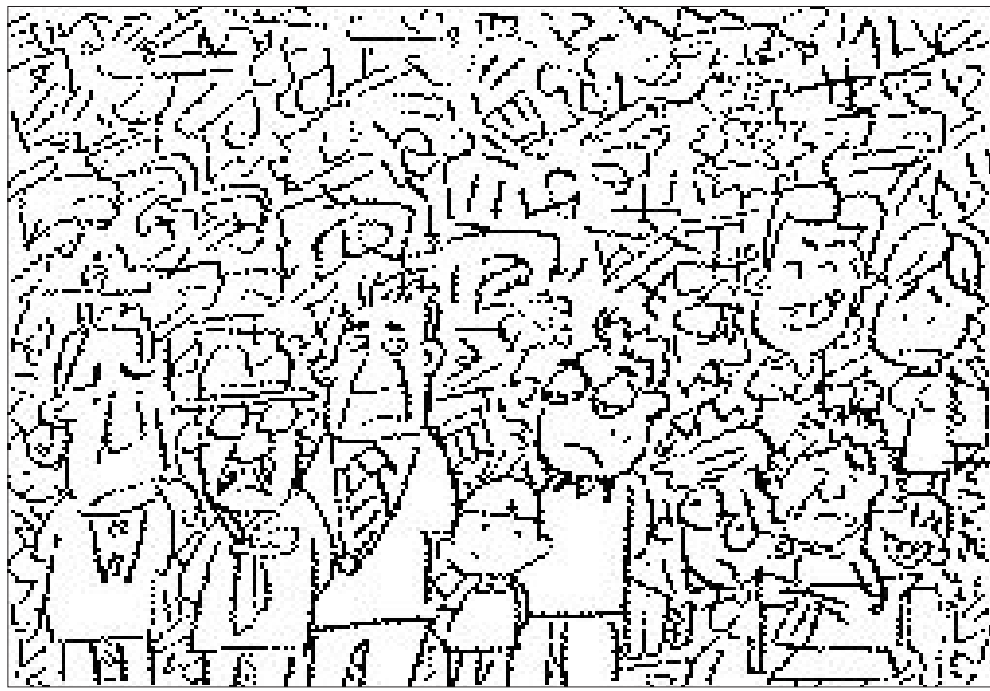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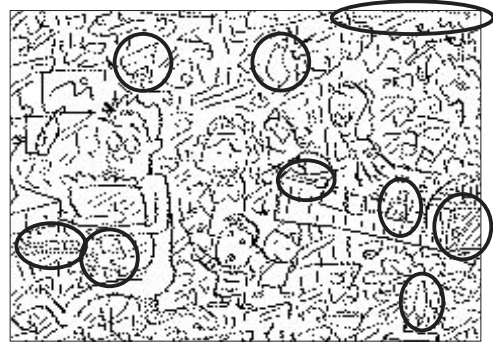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131 >



찾아(보)세(요) 은행잎, 몽당연필, 성냥개비, 셔플룩, 불링핀, 다리미, 갈매기, 사자, 펜촉

남자가 무서워하는 것

- 30대 : 신용카드
-여기저기 막 그어서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조인다.
40대 : 아한 속웃
-아내가 아한 속웃입고 서성거리면 두렵다.
50대 : 꿈국
-한 술 가득 끊어 놓고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라 하고 아내를 3박4일 여행간다.
60대 : 이사
-혹시나 날 버려두고 이사 갈까봐 이사 가는 날 보따리 꺼내고 트럭 조수석에 붙어 있다.
70대 : 등산
-혹시 산에 내다 버려질까봐 두렵다.



지난주 정답

치솔, 열대어, 다리미, A자, 고추, 셔플룩, 화살, 성냥개비, 가지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배지혜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최상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2년 7월4일 분단된 남북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과 평양에서 남측의 이후락 정보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동시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발표했다.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남북의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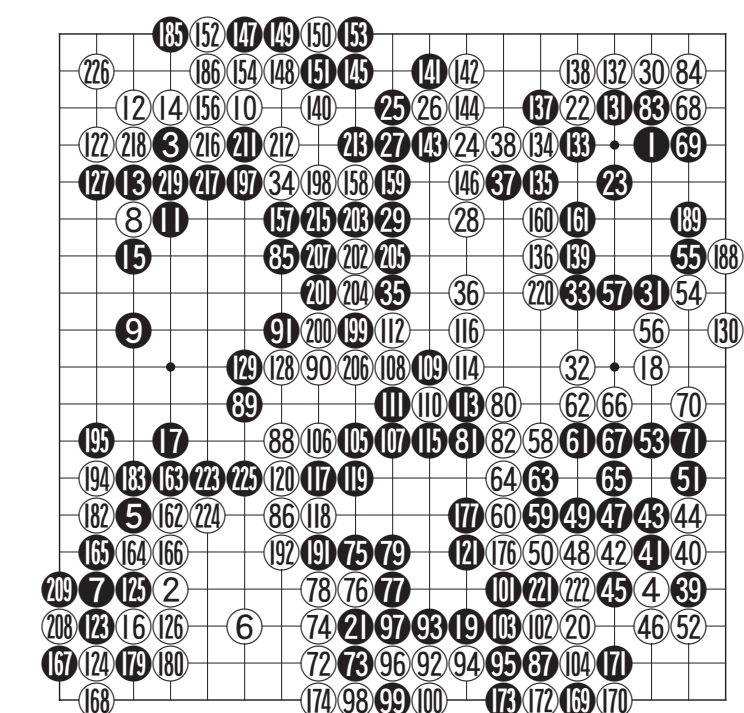


1972년 남북 대표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 성명을 통해 남북은 의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공동성명은 또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남북간 교환 교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직통전화개설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남북한은 1971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 한국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을 실무자로 하여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졌고, 1972년 5월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29일에는 북한의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 2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해 정치적 의견을 교환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남북은 오랜 시간 침묵 끝에 대화 통로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남북의 정치적 이용에 의해 역사적 의미가 빛을 발하기도 했다.
1972년 10월 17일 남한의 10월 유신과 같은 해 12월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는 등 양측은 통일논의를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면서 공동성명은 한계를 드러냈고, 성명 발표 이듬해인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조절위원회가 중단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 언급되는 등 이후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됐다.
분단 55년만에 남북 최고지도자가 만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천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제17회 광일승

박광주 5단, 패조의 3연승
3회전 1국 총보 (1~226)
白 박광주 5단 黑 김현승 5단 (포스코) (창이유통)

2연승자 끼리 만난 3회전의 첫대국에서 결국 판쪽의 박광주 5단이 다 크호스 김현승 5단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3승고지에 선착했다.
이 바둑은 연승자들의 대국이라 단체전의 우승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개인전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판이었다. 이 판을 이기면 3연승으로 결선토너 진출에 한발짝 다가서게 되지만 지게 되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현승 5단도 이 한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상대의 파위를 의식하여 지키는 바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키는 것도 어느정

도는 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부터 흑 15 등 너무 느린 수를 많이 두어 일찌감치 집의 균형이 무너져 거의 완패라고 할만한 내용이었다.
흑 39, 41로 우하귀에 침투했을 때 반전의 실마리가 있었지만 53이 또 느린 수가 되어 71까지 싸움을 떠서는 흑이 이기기 힘든 형국이 되었다. 마지막에 박광주 5단이 우하귀에서 170으로 막는 대무리를 발하여 국면이 요동쳤으나 초반의 실점이 워낙 많아 차수 이하생략, 백 6집 반 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원익배 십단전 개막

제4기 원익배 십단전이 1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개막했다.
십단의 자리를 놓고 200여명의 프로가 격돌하는 예선전은 39개조로 나눠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예선을 통해 39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지난 대회 4강 진출자인 이창호, 목진석 9단, 이영구 7단, 백홍석 6단이 본선시드를 받았다. 후원사 시드는 이세돌 9단의 뒤으로 돌아갔다.
이번 대회부터 상금은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 정식 단수는 아니지만 우승자에게는 십단의 칭호를 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꽤·대장이 좋아지는 기체조
▶단전강화운동(200회 이상)
양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양손을 단전 앞에 가볍게 놓고, 호흡에 맞춰 단전 부위를 앞뒤로 움직인다.
들숨 때는 내밀고, 날숨 때는 꺼뜨리기를 정확하게 하게 한다. 딱딱하게 굳은 장을 풀어주는 데 좋다.
▶배복운동(척추교정운동, 5~10분 정도)
무릎을 꿇고 양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엄지발가락을 괴어 앉은 상태에서, 곧은 나무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면서 배를 내밀었다 넣었다 한다.
1분에 50회 정도 빠른 속도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척추를 흔들면 척추 좌우 근육에 장력이 생기면서 척추가 바르게 펴진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5월 29일 癸卯)
36년생 고생은 크나 결과는 불만이나 마음을 다스리라. 48년생 좋은 사람 만나니 움직이라. 60년생 외부는 소란스럽지만 마음은 편안. 72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즐거운 일이 생길다. 84년생 바쁜 하루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37년생 고역이 점점 소멸되고 평화가 온다. 49년생 마음편한 하루다. 61년생 엄청난 대안이 생길수도 있다. 73년생 신체적 불편이 올 수도 있으니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할 게 여러 가지다. 85년생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남의 눈물도 보라.
38년생 부친의 건강을 살펴보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50년생 꾸준히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6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니 마냥 즐겁다. 74년생 주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 대고는 없다.
39년생 가정에서 큰소리가 외부로 번질까 걱정이다. 51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며 길사주 연결된다. 63년생 아픈 만큼 성숙하니 걱정은 없다. 75년생 흉다갈소 손재가 발명하나 크지는 않다.
40년생 자기 확보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은 절대 금해야 한다. 52년생 황금어는 금물이고 분수를 지켜야 갈라라. 64년생 아지는 시기상조이니 여유를 가져라. 76년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득재 한다.
41년생 오늘은 쉬어라. 53년생 모든 규정은 풀고 내실을 기해야 득이 실보다 크리라. 65년생 새로운 문서에 의문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결정하라. 77년생 가까운 주변 사람이 고생을 주니 잘 지켜야 한다.
42년생 남자는 차가 여자는 남성이 일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54년생 고독한 하루이니 늦게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 66년생 가슴은 답답하나 길은 보인다. 78년생 미운사람이 방해하는 형상까지 겹치니 원망스럽다.
43년생 갑작스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55년생 직업변동과 재가 고생할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감수하라. 67년생 지축이 흔들리는 연영이 나타나니 서로 이해하라. 79년생 음탕사들과 돈거래는 손재가 된다.
44년생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 보라. 그 이상이 돌아오리라. 56년생 고생은 되나 보람은 있다. 68년생 예 친구의 정을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라. 80년생 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 될 것이다.
45년생 천말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57년생 흑운이 바람에 날리니 새로운 형상이 뚜렷이 보인다. 69년생 시키는 미미하나 진행은 꾸준하다. 81년생 협상의 테이블에 나타나니 당당하게 나가라.
46년생 송사와 구실이 생기니 이웃과 화해하면 좋으리라. 58년생 생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70년생 인이나 밖이 모두 소란스럽다. 82년생 시비가 다발하고 불연이 송사까지 갈수도 있다.
47년생 손풍에 뜻을 다니 매사가 순조롭다. 59년생 친인척의 불평사가 나에게까지 돌아오니 주변을 살펴라. 71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곧 해결 될 수다. 83년생 집안 모두가 혼란스럽고 자녀의 고생이 늘어 낙담한다.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문의: (주)후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94>
I don't know for sure.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A: What's Mary doing tonight?
B: I don't know for sure. I guess she'll come to the party.
A: I hope so.
B: I hear you. I need to talk to her.
A: 메리가 오늘 밤 무엇을 할 것 같나?
B: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파티에 참석할 것 같은데요.
A: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B: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be doing tonight = 오늘 밤 ~을 할 예정이다
* for sure = 확실하게
* come to ~ = ~에 참석하다
오하오우 니혼고 <1194>
何(なに)か變(へん)な臭(にお)いしない。
뭔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A: 臭(くさ)い、臭い、何か變(へん)な臭(にお)いしない。
B: うん、あっ、そう言えば改裝中(かいちくちゅう)の隣の家で、ペンキ塗(ぬ)ってたよ。
A: 嫌(いや)だ。コヒの香(かお)りを樂(たの)しもうと思ったのに。
B: 少し待(まち)った方がよさそうだね。
A: 구리다, 구러(냄새). 뭔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B: 응, 앗, 그리고 보니 개축중인 옆집에서 페인트칠하고 있어.
A: 싫어. 커피 향을 즐기려고 하였는데.
B: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そう言(い)えば: 그리고 보니塗(ぬ)る: 칠하다
よさそうだ: 좋을 것 같다
니하오 쑹구워 <171>
你要什麼?
需要什么?
A: 你要什麼?
Nǐ yào shénme?
B: 我要一杯咖啡, 一杯可樂。
Wǒ yào yì bēi kāfēi, yì bēi kělè.
A: 还要别的吗?
Hái yào bié de ma?
B: 不要了。
Bú yào le.
A: 需要什么?
E: 커피 원잔하고 콜라잔이요.
A: 또 원하시는 거 있었어요?
E: 없어요.
咖啡 [kǎfēi] 커피
可樂 [kělè] 콜라
不要 [búyào] 필요 없다, 원하지 않는다
한자 이야기 <811>
柔能制剛(유능제강)
부드러운 유, 능할 능, 누를 제, 굳셀 강
유능제강(柔能制剛)은 부드러운 유가 강한 강을 누른다는 의미로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러운 유로 대응하는 것에 당할 수 없음을 비유한다.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매력은 발상의 전환(轉換)에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뒤집어 반전(反轉)시키는 재능의 소유자들이다. 특히 노자는 낮은 곳,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는 '물'을 주목하여 많은 사색을 남겼다. '노자' 78장에서 "이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하였고, 이어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 사람도 태어날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 죽음이 이르러서는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생겨날 때에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그 죽음이 이르러서는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물은 아이들이고, 여성이고, 노인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에둘러 가든지 땅속으로 스며 가든지 목격자인 바다에 이르고 만다.